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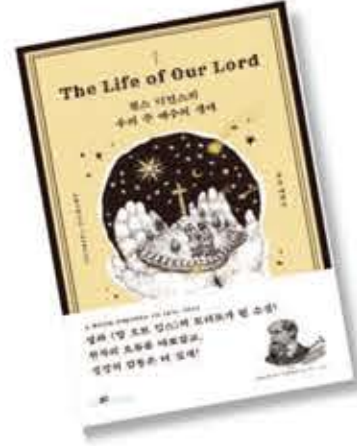
이주의 추천도서

저자 : 찰스 디킨스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우리 주 예수님의 생애 영화<킹 오브 킹스>의 모티프가 된 소설 원작

영화 <킹 오브 킹스>의 모티프가 된 바로 그 소설 원작. 찰스 디킨스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예수님 이야기. 원작의 내용 오류를 수정하여 성경에 맞춘 글, 아름다운 일러스트 수록



디킨스가 자녀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고자 쓴 책. 찰스 디킨스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고자 이 책을 썼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행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주로 누가복음을 택하였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사건들을 책 곳곳에 넣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2년 전처럼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퍼돌고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

야 한다. 그러나 비신자와 어린이, 청소년, 새신자, 어르신이 성경을 읽고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린이들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 한 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들 정도로 흡인력이 있다. 디킨스가 어린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는 집필했듯, 이 책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알도록 신경 썼다. 이 책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사도들이 전도하는 이야기까지 11개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에 맞춘 이야기와 아름다운 일러스트 50여 컷. 디킨스의 원작 소설에는 성경의 서술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내용을 수정하였고, 킹 오브 킹스 즉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큐티지 <성명의 삶>에 실린 목상 그림 중 50여 컷을 선정해 수록했다.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삶을 목상할 수 있다. 읽기 좋게 편집의 가독성도 높여 선물하기에 좋다.

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어서 기존 교회의 형태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는 그릇, 즉 불필요한 형식은 덜어내면서 신앙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의 논리가 아닌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며 교회는 다시 친밀함과 공동체성으로 돌아가야 하며, 브랜드와 공간, 문화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책의 담으며 드는 생각은 교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열려 있는 교회의 개방성을 통해 신앙과 일상이 연결되도록 변화해 가는 것이 교회에서 멀어진 세대들을 다시 불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성 교회의 경직된 사고와 맹목적인 신앙 교육으로 인해 사회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행하기 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대적 부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김 병 모
한국실로업교회

5無(무) 교회가 온다!

번제 새벽기도 없음, 세 번째 성경공부 모임 없음, 넷째 구역조직 없음, 다섯째 장로직분 없음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한국교회라면 전형적으로 갖추게 되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러한 것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뭇 급진적으로 보이게 된다. 하지만 왜 이러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 저자는 전통적인 교회의 운영 방식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문화와는 맞지 않고 진단하며 디지털과 개인주의, 탈종교의 흐름 속에 교회는 고립되어 가고 있기에 브랜드·공간·공동체성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기존 교회의 없애자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공간을 통해 자발적이고 친밀하며 디지털과 연결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한



가능하다면 많은 것을 최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일 것이다. 대중매체와 기업은 이러한 무의식을 자극하여 계속 소유와 소비를 부추기고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소유한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킨다.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물건이 좋아 보이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 점점 줄어드는 성도와 교세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 되다보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5無(무) 교회가 온다"는 MZ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변화의 동력을 제시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칼럼



박 주 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2002년 3월 1일부터 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학생들 생활지도에 잘 하고 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가면서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업무를 맡고 보니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금란교실은 생활지도 담당 장학사가 되어 만든 공공교육의 첫 프로그램이다. 금란지교(金蘭之交)에서 따온 말이다. 김원본 교육감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다. 쇠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난항처럼 고운 품성으로 힘든 시기를 서로 의지하면서 잘 보내자는 의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 공립 도시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탄생했다. 첫발을 내디딘 금란교실은 그해 특별위탁교육 317명을 실시하였고, 교육부 특성화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다음 해에는 교육부가 주관한 혁신박람회에서 '금란교실, 혁신 시범교실'을 전국에 선보였고 지방교육 혁신 우수사업으로 연이어 선정되었다. 이처럼 금란교실이 성과를 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던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 했던 지도 선생님들의 덕분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다.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처한 공통적인 상황이 단절이다. 학교에서 집에서 교사, 부모, 급우들 간 마음을 내려놓을 곳이 없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인적 자원이 '금란교실 추수지도 위원회'이다. 금란교실의 추수지도위원들은 광주범죄예방위원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40여 분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헌신한 교사나 이 분야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을 추천받아 60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십수 년 생활지도에 맡았던 선생님, 상담 분야에 뛰어난 상담전문가, 소리 없이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해오신 봉사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함께 연수를 하면서 취지를 공감하고 너무나 시간이 내주었다. 다음에 이분들은 광주 대안교육의 또 다른 개척자의 길을 함께 걸게 된다. 금란교실에 입교하여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체험학습, 적성교육, 상담활동, 진로지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특히 단위 학교의

첫 작품 금란교실

힘든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오랜 세월 살아왔지만 시교육청의 생활지도는 버거웠고 충격의 연속이었다. 통계를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한 해 중도 탈락 학생이 수백 명이 넘었다. 전국에서는 연 5만여 명이 학교를 떠났다. 당시만 해도 학교폭력이나 비행으로 처벌받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나눠서 지도할 공간도 없었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이 부적을 학생 숫자를 보고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707을 생각했다. 장학사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어가자 책상머리에 앉아 일선 학교에 당부나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707처럼 해보자. 아니 707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교육감실이 있는 2층을 수없이 드나든 끝에 2004년 4월 8일 '금란교실'이 문을 열게 되었다. 비용, 장소, 프로그램, 인적 자원, 부서 간 업무 협조 등 막대한 초행길이었다. 어둡고 거친 들판이었다. 그러나 열정과 간절함의 소망이 개소식을 열게 해주었다. 장소는 신창동에 있는 교육연수원이었다. 신규교사들의 집합연수가 있던 시절에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쓰던 부속 건물을 수리했다.

기억나는 스승님과 연결해 주기도 했다. 교육이 끝난 뒤에 6개월간 추수지도위원 선생님들과 연계하여 상담하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추수지도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춘기 시절을 선생님과의 의지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제도였기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으로 알려져 당시 인천, 전북, 경기, 충남, 제주교육청에서 선진지 견학 겸 벤치마킹을 해갔으며,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관련 자료와 시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금은 학교 부적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학생도 오고 있으며, 학부모 특별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매년 학생 특별교육 400여 명, 학부모 교육 200여 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학생, 학부모 1만여 명이 금란교실을 거쳐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초차 장학사 시절 만들었던 금란교실이 아련해진다. 오늘날 전국 지역교육청에 만들어진 Wee-Center는 광주시교육청이 개설한 '금란교실'의 산물이다. 2008년 3월 1일 학생교육문화관으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e.or.kr



한글루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
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
사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
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
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제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
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
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 학 부 (졸업후 진도사 시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후 모든 학적권리는 본교인 서울 남한총신에서 주관함.
학 술 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 원서접수: 수시접수 (062-266-0153)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0명

광주총신 특별사항

- ▶ 신학부: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 신학연구원: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cce.or.kr>)
- ▶ 주야간반: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매주 토요일
-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부부학생특혜
- ▶ 최고의 교수진 / 실용전문가 / 실전목회자 양성
- ▶ 교회개혁, 설립인원,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 한교연, 한가총, 한장연, 세기총 가립 교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